

■ 기획특집

## 고전시가와 문화콘텐츠\*

나경수\*\*

<차 례>

1. 문화요구의 수용과 문화콘텐츠로의 변용
2. 근대문학 극복프로젝트로서 신르네상스 기대
3. 고전시가의 재생모티브와 문화콘텐츠

### <국문초록>

개인들의 욕구가 모여 사회적인 문화적 요구로 분출된다. 이 시대는 과거와는 다른 문화적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문화콘텐츠라는 신개념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전시가가 겪고 있는 오늘의 문제 중 하나는 그것의 가치에 상관없이 즐기려 하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전화에 실패한 까닭도 그 한 요인일 수 있다. 한 때 근대서사가 개연성을 앞세워 공격했지만, 오늘날 고소설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환상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듯, 서정장르에 속하는 고시가 역시 그것을 재생시키는 현전화의 방식으로서 잃었던 또는 유보해두었던 음악성과 음악을 되살리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줄로 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적 전략에 따라 우리의 고전시가에 속하는 국문시가, 구비시가, 한문시가의 작품을 현전화하여 오늘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또는 이용 가능한 문화자원으로 재생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형태의 변화보다는 기

\* 이 논문은 2015 한국고시기문화학회 제28회 전국학술대회의 기초강연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능적 전환을 통해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문화로 재생시키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핵심어 : 고전시가, 문화콘텐츠, 재생문화, 시간자원, 재생모티브, 환상성, 정형시

## 1. 문화요구의 수용과 문화콘텐츠로의 변용

### 1.1. 문화요구의 변화와 시대적 적응

문화적 요구는 시대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문화가 변화되는 속성을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요구이다. 예를 들어 공업사회가 전개된 까닭이 무엇일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공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공업의 산물을 필요로 했던 불특정 다수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업이 천재들이 마련한 인류사적 선물이었다고 보는 관점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보편적 수요욕구가 공업을 유발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선할 수 있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나름대로 거대한 집단적 문화요구 또는 문화욕구가 있다. 이전의 시대와는 변별성이 분명한 이 시대의 문화가 있는 셈이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 그들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시대를 문화적 기저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싶었을 때 보편적 다수가 공산품을 필요로 했으며, 따라서 공장천하지대본(工場天下之大本)의 시대와 문화를 구축하고 구가했다. 이제 사람들은 편한 삶의 추구 이상으로 질높은 삶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에는 문화천하지대본(文化天下之大本)의 시대가 개막되며, 거기에 맞는 문화가 구성된다. 근대적 공업사회가 데카르트류의 이성주지와 함께 논단

되면서, 탈근대로 표상되는 오늘날과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는 시대를 이미 맞은 바 있다.<sup>1)</sup>

따라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대중 다수의 문화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독자적 이해도 가능하겠지만, 근대문화와의 차이를 선명히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따라서 먼저 근대와 현대의 문화적 요구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그에 대한 배경론적 측면을 몇 가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sup>2)</sup>

◦ **이성주지에서 감성위주로의 변화:** 이 시대에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IQ(intelligence quotient) 중시에서 EQ(emotional quotient)를 중시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두어두었던 상상력이라는 것, 창의력이라는 것 등이 문화정책, 문화산업, 문화교육 등에서 역시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다.

◦ **일원에서 다원으로 변화:** 우리는 멀티시대의 개막을 보고 있다. 기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념과 사상, 그리고 문화까지도 역시 다원적 담론(multi-discourse)과 다원적 접근(multi-access)이 부각하고 있다.

◦ **분할에서 통합으로 변화:** 본래 이성언어는 언어의 이산성(離散性)이 그렇듯, 쪼개고 나누어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러나 이성 주지의 시대를 벗어나면서 융합, 통섭 등의 용어가 유행하고 있는 사례가 이를 증명해주는 바와 같이 이제 분할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를 맞고 있다.

◦ **매스미디어에서 하이테크미디어로 변화:** 소수의 의견과 의사결정이 절대적이던 전근대사회와 근대사회의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바로 언론으로 대표되는 매스미디어의 발달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SNS와 같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하이테크미디어를 통한 양질의 정보와 선택적 정보의 수용이 훨씬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 **소품종 다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던 공업사회의 대량생산체제와는 달리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운데 창조적

1) 호미 바바 저(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서울: 소명출판사, 2005<4쇄>), 340쪽.

2) 나경수, 「호남지역 전통문화의 現前化를 위한 활동 모색」, 『호남문화연구』 39,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06, 213~240쪽.

개성을 중시하게 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시기의 도래와 함께 다품종 소량생산의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 **엔지니어링에서 테크놀로지로 변화:** 대학은 이미 20세기에 들면서 과학에서 공학 중심으로 바뀌어 왔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생산품을 얻기 위한 엔지니어링보다는 지식기반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20세기 후반부터는 테크놀로지를 중시하게 되었다. 대학은 테크놀로지에서 언젠가는 앞으로 아트(art)를 끌어들이게 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 **일방에서 쌍방향 소통으로 변화:** 소통의 구조가 일방에서 쌍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통신의 혁명이 일게 되면서 정보의 소통구조가 일방에서 쌍방향으로, 그리고 동시 소통의 길이 짧아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정보의 대량적 유통은 물론 정치적으로는 민주를 견고히 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 **세계화에서 세방화(glocalization)로 변화:** 국제적 역학관계는 지속적인 확장을 이루어 왔으며, 특히 제3세계의 등장은 근대적인 서구 일변도의 국제화나 세계화(globalization)가 허구적 미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세계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되는 가운데 문화의 진정한 근거지인 지방화(localization) 역시 그에 못지않게 강조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문화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힘의 균제를 이루어 가고 있다.

◦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 공급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r 공업시대는 이미 경과했다. 선택적 결정의 주역이 이제 소비자가 된 것이다. 선후의 구조, 다시 말하면 선생(先生)과 후학(後學)으로 지식이 전수되는 것으로 생각해온 교육에서조차도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교육의 문법체계가 바뀌고 있다.

◦ **삶의 편의에서 삶의 질 추구로 변화:** 공업은 삶의 편의를 제공하는 혁명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로부터 얻어지는 편의는 더 이상 감동을 줄 수 없다. 편할 만큼 편해진 사람들은 이제 생활의 편의보다는 생활의 질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잔존문화에서 재생문화로 변화:** 역사의 노폐물이며, 어떤 점에서는 폐기 처분되어야 할 문화로 간주되던 잔존문화(survival culture)가 이제 국면을 달리하게 되면서 문화산업시대에 이르러 하나의 새로운 유력한 문화원형자원으로서 재생문화(revival culture)로의 재등단을 기다리고 있다.

◦ **공간자원에서 시간자원으로 변화:** 수렵채취사회와 농업사회는 물론 공업사회에서도 공간자원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문화산업의 시대가 되면서 가공을 기다리는 자원이 달라졌다. 수렵채취나 농업사회의 땅이라는 지표자원도 그렇지만, 공장에서 가공되던 것도 지하자원으로서 공간자원이었다. 그러나 문화산업에서는 역사와 전통에 묻혀있는 시간자원을 발굴하여 가공하게 된다.

## 1.2. 문화콘텐츠로의 변용과 문화상품의 생산

문화콘텐츠라고 하는 용어는 아직도 애매하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조차 그 개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연구자마다 각기 나름의 개념을 정립하고 거기에 따른 각론들을 펼치는 실정이다. 문화콘텐츠를 개념화하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경향성은 분명히 들어 보일 수 있다.

첫째, 문화상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문화콘텐츠와 관련해서 거론되어 온 양상을 보면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가 문화산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화복지 및 문화교육에도 역시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OSMU(one source multi use)의 개발방식을 취한다. 하나의 원천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내는 것을 하나의 문법적 모델로 삼아 왔다. 마치 소설 『해리포터』를 동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캐릭터,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로 스펙트럼화를 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MSOU(multi source one use)의 방식도 유력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유명해진 원천자료는 OSMU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원천자료들은 여러 가지를 합성하여 하나의 유력한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

셋째, 창조적 방식을 통해 생산된다. 농산품의 경작(耕作), 공산품의 제작(製作)과는 달리 문화산품은 창작(創作)이라는 생산화 과정이 일반적이

다. 그러나 창작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변용적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특히 원천자원을 가진 경우에는 기능 또는 형태를 변용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산품을 생산하는 예가 많다.

넷째,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 문화콘텐츠의 대표적, 선도적 분야는 디지털콘텐츠였다. 그러나 문화콘텐츠가 디지털콘텐츠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웰빙콘텐츠, 훈련콘텐츠, 스포츠콘텐츠, 가요콘텐츠, 관광콘텐츠, 홍보콘텐츠, 복지콘텐츠, 레포츠콘텐츠, 교육콘텐츠, 축제콘텐츠, 영상콘텐츠, 무대콘텐츠 등 우리의 삶과 연계된 모든 분야에서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가능하다.

## 2. 근대문학 극복프로젝트로서 신르네상스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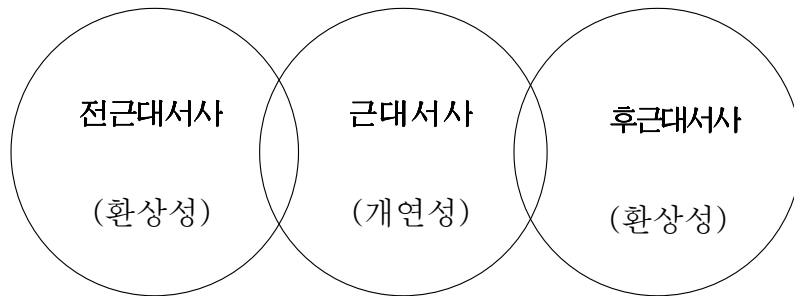
### 2.1. 개연성과 환상성

고전문학이 근대문학기를 거치면서 크게 변용되었다. 근대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철학과 예술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철학에서는 이성주의가 큰 흐름을 이루었고, 문학에서는 사실주의가 역시 큰 주류를 이루게 된다. 엄밀한 관점에서 보자면 철학과 예술이 과학에 종속 또는 편승한 예로 보겠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의 하나인 문학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고대의 서사문학과는 달리 근대의 서사문학은 개연성(probability)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였다.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내용을 취하게 된 까닭도 전반적 흐름으로 보자면 과학주의나 이성주의에 편승한 사례로 간주된다. 개연성의 다른 이름일 수 있는 사실성이 근대 서사문학의 주류를 이루면서 전근대 서사문학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기이성이나 환상성을 유지한 것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서사의 흐름은 근대 서사가 공격했

던 전근대 서사의 기이성이나 환상성이 오히려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등 소설도 그렇지만, “인디애나 존스”를 필두로 하여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서사의 전개는 근대 서사가 으뜸으로 삼았던 개연성과는 확실히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전근대, 근대, 후근대(post-modern, 또는 현대)로 이어지는 서사의 흐름은 근대 서사를 기준으로 삼고 보자면 시대를 역행(逆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 즉 전반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삼고 보자면 회귀 또는 부활이라 할 수도 있다.



근대의 이성주의는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이름지었지만, 후근대(현대)의 서사문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근대문학은 또 다른 하나의 암흑시대였다. 왜냐하면 문학이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의 자유를 개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환상성을 유지한 전근대적 상상 과잉 정도로 폄하해버렸던 데서 그 혐의가 짙다.

인간의 정신을 이성애 가뒤편에 가뒀던 근대 지성사 또는 근대 철학사에 대해 반기를 들기 시작했던 실존주의는 이성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시도했다. 1934년 처음으로 포스트 모던(post-modern)이라는 말을 만들어 쓴 토인비도 반근대적 사관을 정립했다. 도전과 응전의 반복사관을 설파한 것이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과정에 르네상스가 있었듯,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사이에도 역시 신르네상스는 존재했다. 그것을 문학, 특히 서사문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개연성을 맹신했던 근대 암흑시대

로부터의 탈출이며, 아프락서스의 탈각과 비상을 꿈꿀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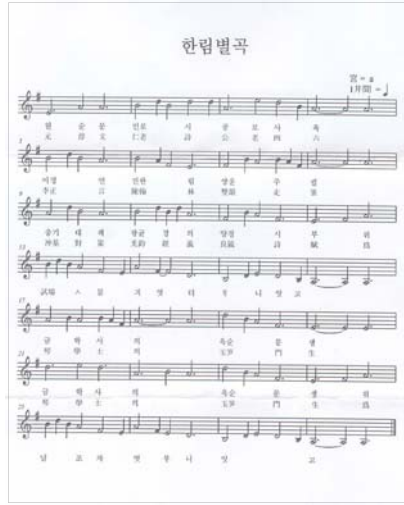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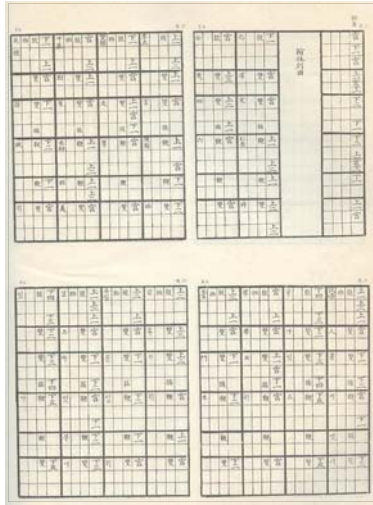
## 2.2. 자유시와 정형시

현대의 서사정신이 근대의 개연성에서 벗어나 다시 환상성을 복권시키면서 자유로운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가고 있는 바와 같이, 서정 역시 복권을 위한 진지한 담론이 호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담론에 던질 수 있는 화두의 하나로 잃어버린 음악성을 들어보고자 한다.

시란 종합예술적 성격을 가진다. 언어예술이면서도 이미지를 통해 미술을, 운율을 통해서 음악을 함께 담는 종합예술이다. 근대에 이르러 서정에도 자유시의 바람이 압도하면서 전통적인 운율을 파괴했다. 정형시는 사상 전개의 한계를 노정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보다 활발한 사상 전개를 위해 운율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시를 구가하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자연히 음악성을 잃어왔다.

우리말로 된 전통적인 고전시가는 모두 노래였다. 전통가요는 고정소와 가변소로 이루어진다. 고정소는 음악이며, 가변소는 문학으로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평시조는 꼭 그 곡조에 따라 불러야 하는 고정소로서의 음악적 구조가 있고, 거기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가사말로써 시조가 지어진다. 자유시란 고정소로부터의 일탈이다.

근대의 자유시가 우위를 점유하면서 전통적인 음악적 선율은 해체되었다. 정형시라고도 말해지는 우리의 고전시가는 애초에 언어학적 운율이 없었다. 다만 구조적인 음율만 있었다. 그리고 그 음율구조의 최소단위는 음보였다.



위와 같이 [대악후보]에 실린 “한림별곡”의 정간보를 오선보로 옮기고 보면<sup>3)</sup> 전형적인 4음보의 음률 구조를 얻는다. 아래와 같이 전통적인 어부사 계통의 노래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sup>4)</sup>

3) 경인교육대학교 국악과 김혜정 교수 채보

4) 전남대학교 국악과 이용식 교수 채보

12가사 중 “어부사” 제1장

1. 앞-간-어-를-이-죽-포-간-위-아-  
 2. 자-면-죽-수-  
 3. 승-거-산-을-배-떡-어-라-  
 4. 배-떡-어-라-조-조-  
 5. 지-떡-만-조-어-라-  
 6. 지-죽-승-지-죽-승-  
 7. 어-사-와-의-니-의-선-  
 8. 떠-보-일-견-고-라-

윤선도 “어부사시사” 제1장

1. 앞-개-안-개-건-고-뒷-산-에-  
 2. 배-떠-라-배-떠-라-밤-물-은-거-의-지-고-  
 3. 낮-물-이-밀-려-온-다-지-국-총-지-국-총-  
 4. 어-사-와-강-촌-온-갓-꽃-이-먼-빛-이-더-욱-좋-다-

雪鬢漁翁이 住浦間호야 自言居水  
 勝居山을 비떡여라 비떡여라 早潮  
 纔落晚潮來라 至菊叢 至菊叢  
 於斯臥허니 依船漁父이 一肩高라

앞개에 안개 건고 뒷산에  
 해비친다 배떠라 배떠라 밤물은 거의 지고  
 낮물이 밀려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강촌 온갓 꽃이 먼빛이 더욱좋다

윤선도는 “어부사시사”를 지으면서 그것이 노래로 전승되기를 기대했다. 시심이 일어 전통적인 어부사와는 달리 국문시가로서 어부사의 가사를 새로 지으면서도 기존의 어부사에 가락에 얽어 노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이다.

앞개에 안개 건고 뒷산에 해비친다  
 배떠라 배떠라  
 밤물은 거의 지고 낮물이 밀려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강촌 온갓 꽃이 먼빛이 더욱좋다

일반적으로 문학교과서에서는 “어부사시사”를 위와 같이 표기해왔지만, 앞에서처럼 노래로 가창되는 형식에 따라 악보로 바꾸고 보면 “어부사시

사”는 물론 “어부사” 역시 확연한 4음보의 음률 구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표기되는 구조 역시 다르다.

전통적인 우리의 고시가가 불리던 것과는 달리 읽히는 시로 간주되면서 위와 같은 오류가 양산되기도 했지만,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이 “가시리” 일부 악보의 구조만 보더라도 고려가요에서 흔히 나오는 “위”라는 감탄사 어구가 실은 감탄사 어구로서의 구실보다는 음율적 역할을 하고 있음도 드러난다. 고려가요에 흔히 나오는 “위”는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맨 뒤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명된다.

가시리 가시리 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 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大平盛代



고전시가가 가졌던 4음보의 전통적 기조가 근대적 시정신에서 발로된 자유시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리고 음악과 결별한 언어예술로서의 자리를 고집하게 되면서 왜곡된 시학적 편견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기조는 한시의 번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근체시는 전형적인 정형시이다. 언어적 구조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번역시의 경우 본래의 정형성을 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최행귀의 “보현십원가” 번역시나 여러 소악부의 번역시 역시 정형시 형태의 한시로 번역했듯이, 한시를 번역하는데도 전통적인 우리의 4음보 구조를 살린 현대어로의 번역도 고려해봄직 하다.<sup>5)</sup>

5) 여기 번역시 3수는 필자가 의도적으로 4음보로 번역을 한 것들이다.

○ 주희의 “무이구곡가” 중 序詩

武夷山上有仙靈	무이산 꼭대기엔 신성함이 서려있고
山下寒流曲曲清	산아래 굽이굽이 맑은강물 흐르누나
欲識箇中奇絕處	그중에 빼어난곳 알고싶어 하거들랑
櫂歌閑聽兩三聲	벃사공 노래소리 몇마디만 들어보소

○ 임석천 “면양정 30영” 중 錦城杏靄 金성산의 저녁노을

野遠茫難辨	들판아득 망망하여 분간하기 어려운데
千雲散作霏	길게드린 구름떼는 연기처럼 흩어지네
落霞添五色	낙조따라 노을져서 오색빛깔 더하노니
欲補舜裳衣	곱고고운 수를놓아 옷을지어 입고싶네

○ 김인후 “소쇄원 48영” 중 長垣題詠 긴 담벼락에 써붙인 시

長垣橫百尺	길옆으로 늘어섰는 백척길이 담벼락에
一一寫新詩	한장한장 종이에다 새로지은 시를써서
有似列屏障	병풍둘러 쳐놓은듯 벌려놓아 두었으니
勿爲風雨欺	비바람아 몰아쳐서 탐내지를 말아다오

중세의 이념에서 벗어나는 한편 새로운 휴머니즘의 가치창달을 위해 몸부림쳤던 근대문학과는 달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걸맞는 현재의 문학을 구가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일 수 있다. 근대의 이념으로 가 뒤두었던 서사에서의 환상성과 서정의 대표적 표현방식인 시에서의 정형성을 부활시키는 문예사적 신르네상스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 3. 고전시가의 재생모티브와 문화콘텐츠

#### 3.1. 현전화모티브와 문화교육콘텐츠-국문시가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은 교육현장에서 흥미유발에 실패한 대표적 케이스에 속한다. 국어교사연수에 강사초빙을 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는데, 이때 주문하는 요구사항 중 하나가 교사들이 고전문학을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문에 만족스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 우선은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고전문학에 대해 즐겁게 느껴야 하지만, 교사들에게 물으면 즐겁지가 않다는 것이 일반적 대답이다.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즐겁지 못하는데, 그것을 즐겁게 가르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현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교사가 안아야 할 몫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왜냐면 교사 자신도 고전문학에 흥미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 까닭이 분명히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그 까닭을 물으면 대답은 간단하다. 내용보다는 우선 읽기가 안 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조사 16, 17세기의 영어로 씌어져 있는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 작품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전공자가 아니고는 많지 않다고 한다. 단테나 괴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연구자에게는 고전시가가 고어로 읽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조차 고전시가가 고어로 읽힐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고어로 고전시가를 학생들에게 읽히려 들면 작품의 내용보다는 표기법에 막혀 오히려 작품에 대해 적대감을 느낄 수 있다.

시간(時間)과 공간(空間)은 둘 다 간격을 가진다. 그 간격이 멀면 멀수록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다가온다. 예를 들면 외국의 문학작품은 공간적 장벽을 넘기 위해 번역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바이런이나 릴케의 시작

품을 원문 그대로 읽으라 주문하면 포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대감을 느낄 것이다. 공간적 장벽과 마찬가지로 시간적 간격도 길고 넓으면 장벽이 된다. 향가나 고려가요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고전시가 역시 학생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언어적 장벽에 막힌다. 우리말로 된 고전시기도 그렇지만, 한시의 경우는 그 거리감이 훨씬 더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고전시가에 대해 두 가지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는 국어교과서에 실린 고전시가와 문학교과서에 실는 고전시가의 표기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어교과서는 국어학적 관점에 중심이 실리기 때문에 언어적 통시성과 고어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원문을 실을 수 있다. 그러나 문학교과서의 경우는 예술로서 즐기는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과감하게 고전시가를 현대어로 고쳐서 교과서에 실고, 학생들이 자신의 호흡으로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일이다.

### 3.2. 웰빙모티브와 문화복지콘텐츠-구비시가를 중심으로

최근 시조창에 대한 색다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한다. 그 까닭은 시조창을 하는 사람의 수명이 평균을 훨씬 웃돈다는 말이 돌면서부터다. 앞으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임상적 연구가 추진될 것으로 안다. 만약 우리가 그간 방기해두었던 시조창이 수명의 연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다면 이보다 더 값나가는 웰빙문화콘텐츠는 없을 것이다.

강강술래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적병을 속이기 위해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우리 군사가 많고 사기가 충천해 있다는 거짓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강강술래를 추게 하여 왜군의 사기를 꺾으려 했다는 것이다. 또 노적봉 전설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사용했다고 전한다. 목포 유달산을 이영으로 둘러서 산더미 같은 군량이 있는 것처럼 적군에게 보이려 했다는 유명한 전설이 목포 유달산이나 진도 금골산에 그대로 전

한다.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는 전설과 같이 이들은 모두 영웅화의 전설적 소재들이다. 나대용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거북선 하면 이순신 장군을 연상한다.

강강술래와 노적봉의 경우도 전설일 뿐 사실로 증명된 바 없다. 강강술래의 분포권으로 볼 때, 벼농사를 많이 지었던 호남지역에 일반적으로 널리 전승되어 왔으며, 오히려 마한시대까지 그 기원이 소급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노적봉전설이나 또 다른 쌀뜨물전설 역시 역사적 사실보다는 전쟁전설에 흔히 등장하는 모티프들이다. 청송 주왕산의 기암전설, 나주와 무안의 몽탄강과 두대봉전설, 통천의 백정봉전설 등이 모두 노적과 쌀뜨물을 모티프로 하는 전쟁설화들이다. 군사가 많은 것으로 위장을 하기 위해 노적과 쌀뜨물이 전쟁설화에서 흔히 등장하다가 이순신의 임진왜란과 관련해서는 강강술래가 추가적으로 사용된 예로 보겠다. 위장전술모티프라는 공통선상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화소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순신장군이 강강술래를 만들었다는 것이 비록 역사적 사실(事實)은 아니고 전설적 사실(寫實)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하나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겠다. 즉 강강술래가 전설 속에서 전술콘텐츠로 활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적 의미의 문화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강강술래는 88서울올림픽 폐막식 때 그 모습을 세계인들에게 선보인 바 있다. 승부를 겨뤘던 수많은 세계 젊은이들이 이제 손에 손을 잡고 크게 원을 그리며 세계의 평화를 위해 춤을 추었던 것이다. 승부의 긴장과 피아의 맺힘을 이완과 풀림으로 마감하고 장식하는 기제로서 강강술래가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강강술래는 하나를 지향하고 하나를 만드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노인의 건강은 가정은 물론 사회의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 문제는 자칫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다. 노인의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요소는 물

론 육체적 건강이 1차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외로움이라는 것도 마음의 병을 기르고 키우는 요인이다. 노인이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의 건강도, 사회의 건강도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집단이든 구성원 중에서 일부라도 건강을 잃으면 전일체적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강술래는 본래 추석날 밤에 주로 젊은 여성들이 추었던 세시풍속의 하나이다. 세시풍속의 놀이는 단지 놀이를 위한 놀이가 아니라 주술적인 기원의 뜻을 담고 있다.<sup>6)</sup> 하늘에는 한가위의 둥근 달이 휘영청 밝고, 땅 위에는 젊은 여성들이 그려내는 강강술래의 둥근 모양의 춤이 있다. 그리고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있는 때다.

젊은 여성들은 가임성이 왕성하다. 강한 수태 능력을 가진 젊은 여성들이, 그것도 집단적으로 손에 손을 잡고 그리는 원형은 한가위의 가득 차오른 달이 그렇듯, 속이 가득 찬 모습이다. 들녘에서 익어가고 있는 오곡백과가 속이 가득 찬다면 그것은 필시 풍년이다. 강강술래의 강렬한 에너지가 유감주술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의적 적절성이 바로 한가위의 세시풍속으로서 추어질 수 있었던 현전적 전승의 필연성과 일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술적 방법으로 풍요다산을 구가할 수 있다는 속신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과학기술영농을 통해서 풍요도 다산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진보론적 발전과정에서 전시대의 문화가 기능은 없어진 채 형적만 남기고 있을 때 그것을 부르는 말은 잔존문화(survival culture)이다. 19세기 영국에서 과학이 발전할 때 문화학에서 대두된 말로서 이 말은 타일러(E. B. Tylor)가 처음 사용했던 말이다. 이양기가 등장하게 되자 모내기를 하면서 부르던 들노래가 더 이상 불리지 않듯이, 경운기나 트랙 등 운반기계가 사용되면서 지게도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잔존문화가 된 것이다. 강강술래 역시 잔존문화인 것은 마찬가지다.

6) 나경수, 「줄다리기와 강강술래의 주술-종교적 의미」, 『광주전남의 민속연구』(서울: 민속원, 1998), 50쪽.

잔존문화는 더 이상 기능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폐기된 문화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잔존문화는 폐기문화가 아니라 기능적 전환을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현전적으로 살아있는 문화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자전거는 잔존문화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전거는 다만 이동수단으로서만 아니라 오늘날 스포츠 또는 레포츠용으로 기능적 전환을 해서 크게 사용되고 있다. 강강술래만 아니라 수많은 잔존문화들이 고유의 기능을 잃으면 잔존문화가 되고 말지만, 새로운 기능을 얻게 된다면 재생문화(revival culture)가 될 수 있다. 물질적인 유물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유산, 유풀, 유습 등도 마찬가지다.

강강술래는 이제 더 이상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강렬한 집단적 기도의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현전성을 상실한 불용의 문화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기능적 전환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활성화된 재생문화로서 기능을 새롭게 얻게 된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기능적 전환과 활용을 점검해본다.

첫째, 노인복지에 활용하는 것이다. 노인문제로서 심각한 건강과 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구해보는 것이다. 특히 노인의 성문제는 사회적으로 차라리 기피되기도 하지만, 심각성은 늘 제기되어 왔다. 남녀 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들의 체력에 알맞은 강강술래를 개발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강강술래는 본래 빠르기에 따라 긴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잣은강강술래로 추어졌다. 노인들이 즐기면서 감당할 수 있는 속도나 운동량을 고려하여 강강술래를 재창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강강술래는 여러 가지 부대놀이가 발달해 있다. 지루한 반복적 형태만 아니라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강강술래를 즐기는 사람들은 불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현대적인 정신장애를 겪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up>7)</sup> 특히 남녀 노인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체온을 나누면서 강강술래와 유사 부대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발

7) 김미숙, 오수성, 한규석, 「강강술래의 예술치유 현상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27권 제3호, 2008. 771쪽.

한다면 얼마든지 노인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재생문화가 될 수 있겠다.

둘째, 유산소 운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이른 밤시간이 되면 유사한 현상을 목도할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이 나와서 유산소 운동을 즐기는 모습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대운동장만 하더라도 저녁시간이 되면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경보 등 운동을 즐긴다. 다른 한쪽에서는 에어로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넓은 운동장에 여러 개의 원을 그리면서 강강술래를 하는 춤꾼들을 연상해본다. 처음에는 해남이나 진도에서 강강술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강강술래보존회의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시작해도 되겠다. 그러나 점점 익숙해지면 자율적으로 춤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전 시골 마당에서 추던 강강술래가 꼭 누군가의 지도로 행해졌던 것은 아니다. 민요란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쉽다는 뜻이다. 강강술래는 대표적인 민요의 하나로 불리기도 하지만, 노래만 아니라 춤이 함께 한다. 그러나 그 강강술래의 춤동작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몇 번만 따라하면 누구든 할 수 있을 정도로 쉽다. 보편화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이다.

전자손목시계를 차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자손목시계를 사용한다면 고가의 장비를 쓰지 않더라도 쉽게 건강을 점검할 수 있다. 일단의 연구와 실험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일정한 실험적 단계를 거쳐서 강강술래가 과학적으로 건강, 특히 예를 들면 살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된다면, 즐기면서 살을 빼는 두배 세배의 기쁨을 맛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자면 문화수출도 가능한 재생문화로서의 개발도 기획해봄직 하다.

### 3.3. 활성화모티브와 문화정책콘텐츠-고시가를 중심으로

전남의 두 대표적인 사설 원림으로 소쇄원림과 세연정원림을 꼽는다. 2012년에는 세연정에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재현행사를 하고, 2015년에는 소쇄원에서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영”을 재현할 예정이다.

2010년 봄에 세연정을 방문했을 때 여기저기 장치된 스피커에서 낭랑한 목소리의 성우가 “어부사시사”를 낭송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순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12가사의 하나로 전해지는 “어부사”를 기저로 하여 “어부사시사”의 음곡을 편곡하여 전편을 가사창으로 재현하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세연정 배경 어부사시사 재현



세연정에서 어부사시사 재현

그 필요성과 활용에 대해서는 이미 고찰한 바 있지만, 어부사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sup>8)</sup> 고려시대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이 김영돈(金永暉, ?~1348)의 죽음을 애도하며 한편의 시를 짓고, 그 시에 나오는 어부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주를 달았다.<sup>9)</sup>

8) 나경수, 「어부사시사」의 문학 교육적 문제와 해결 방안, 『우리말교육현장연구』 6,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2, 127~158쪽.

9) “悼龜峯金政丞永暉” 謝傳風流逐逝波。蒼生有望奈今何。龜峯峯下滿船月。腸斷一聲漁父歌(『益齋亂稿』 4 詩)

본관(김영돈)은 술이 취하면 매번 기녀 표피에게 어부사를 노래하도록 했다.(本官醉後。每令妓豹皮歌漁父詞)

김영돈은 김방경의 손자 되는 사람으로 충렬왕 때 조적(曹頤)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1342년에 일등공신이 되어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에 봉해졌던 당시의 명문가 고관대작이었다. 고려시대에 상류층에서 어부가를 즐겼던 사실을 보여준다.

(태종은) 경복궁(景福宮) 누각과 못에 거동하여 두루 돌면서 살펴보고, 또 본궁 수각(水閣)에 거동하여 상왕을 맞이하여 타구(打毬)하는 것을 구경하고 잔치를 베풀어 극진히 즐기었다. 사람을 시켜 또 못에서 고기를 잡게 하고, 창기(唱妓)에게 명하여 어부사(漁父詞)를 부르게 하였다. 상기(上妓)와 악공(樂工)에게 저화(楮貨) 1백여 장을 주었다.<sup>10)</sup>

위는 조선조 초에 궁중에서 어부사를 즐겼던 사실을 보여주는 『태종실록』의 기록이다. 같은 해 6월 15일에도 태조는 경복궁 경회루에서 다시 어부사를 즐겼으며,<sup>11)</sup> 조선조 초 권신인 양촌 권근(權近, 1352~1409)도 어부가를 좋아했다 한다.<sup>12)</sup> 조선조 중기에 특히 농암 이현보(李賢輔, 1467~1555)와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이 어부사를 극히 즐겼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현보의 어부사와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어부사시사를 비롯해서,<sup>13)</sup>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화방재사,<sup>14)</sup> 경산 이한진(李漢鎭, 1732~?)의 속어부사,<sup>15)</sup> 신재효의 어부사 등이 계속 지어져 불리었다.<sup>16)</sup> 현재 『악장가사』에 실려 있는 어부사와 12가사로 전

10) 『조선왕조실록』 태종 12년 임진(1412) 4월 17일 임금이 경복궁의 누각과 못을 구경하며 놀다

11) 『조선왕조실록』 태종 12년 임진(1412) 6월 15일 상왕이 임금을 맞아 경회루에서 잔치를 베풀다

12) 『동문선』 제78권 기(記) 어촌기(漁村記) 권근(權近)

13) 『龔巖先生文集』 雜著 卷之三 歌詞 “漁父詞”

14) 『旅菴遺稿』 卷之二 辭 “畫舫齋辭”

15) 『청구영언』 속어부사

해지고 있는 어부사까지를 포함해서 많은 어부사가 전하고 있지만, 운선도의 어부사시사를 제외하고 이들 모두가 한시를 집고하거나 7언 절구의 한시를 개작하여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한 것들이다.

어부사에 대해 시조니 가사니 하는 논쟁을 접고 경기체가처럼 하나의 독립적인 시가형태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경복궁의 경회루를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정자에서 어부사를 노래하는 문화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소쇄원 48영의 마지막 시에 보면, 새로 시를 지을 때마다 한지에 써서 소쇄원을 두르고 있는 애양단이라는 토담에 붙여두고 감상하면서 노래했던 대목이 나온다. 또 이러한 모습을 비와 바람을 불러서 시샘하지 말라는 말로 시를 마감하여 풍류방의 흥취를 실감나게 들려주고 있다. 최근에 소쇄원 및 그 인근에서 탁죽행사가 재현된 바 있다. 목판으로 판각된 “성산계류탁열도”라는 그림에 당시 주변 선비들이 모여서 냇물에 발을 담그고 서로 시창으로서 수창하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재현행사에서 불리는 것은 가사와 시조만이였다. 한시창이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재현행사에 불과했다.

소쇄원은 연간 수십만명이 방문하는 명소이다. 조경과 건축미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정작 소쇄원을 경영했던 까닭은 그 많은 명사들이 서로 교유하면서 시를 짓고 어울려 수창을 하는데 있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까닭은 그 장소가치도 물론 한몫을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국 최고의 명작들이 지어진 곳이라는 점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시의 성독은 알지만, 가창되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쇄원을 중심으로 한 가장 뛰어난 시로서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영

16) 황일호(黃一皓, 1588~1641)의 백마강가(白馬江歌)와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창부사(倉父詞)도 어부사류로 거론된다. 그러나 백마강가는 시가형식이 크게 다르다. 또 창부(倉父)란 시골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래말 역시 어부사와는 달리 시골의 생활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중간여음의 구성 역시 다른 어부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을 든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가 이제는 판액으로 제월당에 걸려 있을 뿐이다. 시를 지을 때마다 한지에 써서 담벼락에 붙여두고 감상도 하고, 또 시창도 했던 전통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과거 시창 전통을 재현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가단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담양의 소쇄원에서 소쇄원 48영을 한시창으로 재현한다면 그 의의는 분명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누정에서도 역시 동일한 재현 운동이 일어 파문적 확산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영” 재현 행사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다.

1) 한국 누정문화의 최고봉으로 꼽는 소쇄원에서 한국의 명유 하서 김인후가 지은 소쇄원 48영의 시창 재현을 통해서 누정에서 즐겼던 양반층 시창 문화의 전통을 복원한다.

2) 시창과 더불어서 한시의 성독(聲讀) 전통을 구현하여 한시 창화의 진면목과 누정문화의 단면을 재현한다.

3) 5언 절구로 되어 있는 한시를 현대인도 그 내용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4음보의 정형시로 번역하여 시 낭송회를 함께 열어 많은 사람이 내용과 의미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4) 하서 김인후가 “소쇄원 48영”을 한번에 지은 것은 아니었다. 틈틈이 새로 지은 한시를 종이에 써서 애양단 담벼락에 붙여두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감상하고 즐기던 양반들의 정자 풍류가 마지막 48영의 내용이다. 이번 소쇄원 재현행사 현장에서 서예가가 직접 시를 써서 성독을 하는 정자풍류도 재현하여 한시, 시창, 풍류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다.

5) 시창의 재현 및 신곡 가창을 전문적인 영상업체를 통해서 녹음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활용을 모색한다.

-광주 FM국악방송 등과 협약을 맺어 시창에 결들인 한시 해설 및 감상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며, 문학 및 음악 교과서에 QR코드 형태로 실을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한다.

-소쇄원에 방송시설을 설비하여 소쇄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소쇄원 48영을 노래로 들으면서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을 통해서 소쇄원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해설사 및 동호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선인들이 즐겼던 정자가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는 예가 많다. 그 정자에서 지어졌던 시가를 오늘에 재현하여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문화정책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려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동문선』

『조선왕조실록』

김인후, 『하서전집』

김천택, 『청구영언』

신경준, 『旅菴遺稿』

윤선도, 『고산유고』

이제현, 『益齋亂稿』

이현보, 『龔巖先生文集』

임억령, 『석천집』

김미숙, 오수성, 한규석, 「강강술래의 예술치유 현상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27권 제3호, 2008.

나경수, 「어부사시사」의 문학 교육적 문제와 해결 방안, 『우리말교육  
현장연구』 6,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2.

\_\_\_\_\_, 「줄다리기와 강강술래의 주술-종교적 의미」, 『광주전남의 민속  
연구』, 서울: 민속원, 1998.

\_\_\_\_\_, 「호남지역 전통문화의 現前化를 위한 활동 모색」, 『호남문화연  
구』 39,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06.

호미 바바 저(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서울: 소명출판사, 2005<4쇄>.